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 사이에서 길 찾기¹⁾

유 혜 령*

(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요 약

근래 국내외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들이 재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이 연구들이 현상학의 이념과 방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통념들을 짚어보고, 현상학의 근본이념과 방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후설의 현상학에 기초하여, ‘인식정초의 근본주의’, ‘엄밀한 학의 이상’, ‘무전제성의 원리’, 절대적 자기책임의 ‘자율성’이라는 현상학의 이념을 재조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중지”, “환원”, “본질직관” 등의 방법적 원리들이 인간의 주체상관적인 세계인식 현상을 직시하고 학문적 실존의 자세로 의식현상의 심층을 관조하면서 사유를 심화시켜나가는 자세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연구 논리는 연구자의 존재론적 성찰과 사유 능력을 근간으로 현상학의 근본이념을 연구 상황에 맞게 실천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지혜이며, 연구자의 직관과 통찰, 해석 능력을 심화시키는 원리이다. 따라서 연구 기법은 연구자의 존재 및 연구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테크닉이 아니라 연구자의 민감한 성찰과 사유를 도와주는 방법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로는 원초적인 의식 현상으로 들어가기, 연구 문제의식과 문제현상에 집중하기, 당연시되는 통념 및 선입견과 기존 전제 드러내기, 지속적으로 질문해 들어가면서 자신 되돌아보기 등,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변형, 창안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실천현상학, 연구 기법, 연구자의 실존,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I. 들어가며

지난 세기 후반부터 여러 학문 영역에서 질적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현대 철학의 한 흐름인 현상학이 비단 질적 연구의 사상적 배경으로서만이 아니라 독특한 연구 형태를 지닌 실제적인 질적연구 유형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현상학은 문학, 윤리학, 미학 등의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의 주요한 관점 중 하나로, 또한 교육학, 간호학, 상담학, 복지학, 행정학, 신학 등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 질적연구 유형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적연구 접근을 전통적인 순수 철학으로서의 ‘주류현상학’ 또는 ‘전통적 현상학’과 구별하기 위하여, ‘응용현상학’ 또는 ‘신현상학’, ‘실천현상학’ 등으로 이름 붙여 구분하기도 한다. 문제는 신현상학 또는 실천현상학적 연구들이 과연 현상학이라는 심오한 철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지, 즉, 이념적, 방법적 엄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제적 융합이 그러하듯이, 현대 철학을 특징짓는 거대한 현상학 이론체계를 질적연구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론적 감환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의 학문적 이념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질적 연구에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밝히는 일은 앞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하여 학계 일각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통념들을 검토하여 피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현상학의 이념과 정신에 기반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방향을 어떠한 차원에서 모색해나갈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19세기 유럽의 실증주의와 역사주의의 학문적 위기 속에서 탄생한 현상학은 “사태 자체로”라는 격률과 함께 모든 질적 연구방법론의 공통적인 사상적 토대가 되어 왔다. ‘무전제성’ 및 ‘사태적합성’의 엄밀한 학(學)으로 창시된 현상학의 취지 및 이념은 물리학적 객관주의가 지배하게 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전이론적 전제 없이 구체적인 사태 속의 삶의 방식 및 의미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취지와 일치한다. 그러나 원래 인류학 분야에서 시작된 질적 연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현상학, 해석학, 기호학, 신마르크스주의, 여성학, 해체론,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등과 같은 여러 사조들로부터 영향을 받아(Denzin & Lincoln, 2005), 언어적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 연구 타당도와 신뢰도의 정당화 문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힘(power)의 문제, 연구 현장에서의 실천적 윤리 문제, 연구자 자신의 존재론적

지향의 문제 등과 같은 많은 실제적 쟁점들로 방법론적 관심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인문학의 여러 사조들과의 학제적 연접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²⁾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유럽 학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북미의 교육학자 및 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 확산되면서, 비단 질적 연구의 공통적인 사상적 토대로서만이 아니라 독특한 질적연구 유형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해석학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문화기술지, 민속방법론, 담론분석, 전기 연구, 기호학적 연구 등과 함께 뚜렷한 특성을 지닌 질적연구 유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유형들은 실제 수행 상 그 어떤 정형화된 형태들로 확고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과 학제적 역량에 의거하여 여러 유형들이 자연스럽게 혼합된 형태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까닭에,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일고 있고 그 개념을 단순명료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경우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상담학, 복지학, 행정학 등의 여러 영역에서 확산되면서 각기 해당 학문 영역의 인식론적 정향을 닮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현상학적 연구”라는 동일한 이름 아래 함께 범주화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모호해지고 ‘현상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개념적 이해 또한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 해석적 현상학적 연구, 과학적 현상학적 연구 등등으로 세분되어 일컬어지기도 한다(Laverty, 2003; Lopez, 2004). 대체로 자연과학적, 실증과학적 학문 영역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매우 정형화된 연구기법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띠고 있는 데 반해, 교육학 영역과 같이 여러 신생 사조들을 수용하여 인간 존재와 삶의 문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다차원의 철학적 성찰과 개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이념적 논의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문화기술지나 해석학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자서전적 연구 유형과 그 관심과 형식이 혼합된 질적연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일반화된 통념들을 짚어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상학의 근본 이념과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기본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에서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문제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

Creswell(2010)은 문화기술지가 특정한 “문화공유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 행동, 신념, 언어의 공유되고 학습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p. 94)하는 질적연구 형태이고, 내러티브 연구는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들”(p. 86)을 연구하는 형태인 데 비해,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단일한 개인이 아닌]의 삶의 체험(lived experience)적 의미를 기술”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보편적 본질”(p. 91)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질적 연구 방법론 텍스트에서 설명하는 현상학적 연구란 대개 현상학이라는 매우 다양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기 난해한 철학적 전통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 채 간략한 몇 마디 단어로 단순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피상적인 견해들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현상학적 연구를 주로 인간의 내밀한 심리 묘사나 감정, 정서, 의도, 인상 등에 관한 기술 및 분석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면 타당한 것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문화기술지나 민속방법론, 생애사 연구, 담론분석 등의 연구가 인간의 삶과 문화의 양식이나 일상생활의 영위 방법 및 전략 등을 탐구하거나, 사회적 성격의 집단 담론 속에 포함된 권력(power)/이데올로기 관계의 사회문화적 차원, 즉 다소 ‘객관적’ 내용에 집중하는 데에 비해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내면 의식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주체/객체간의 근원적인 상관관계, 즉 인간의 사유와 대상적 세계간의 지향적 구성관계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한 연구 유형인만큼, 물리학주의적인 객관의 입장에서 주관과 객관간의 뚜렷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관성 속에서 공통적인 본질인 객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현상학의 중심 개념인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y)”을 통하여 그 상관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만약 현상학적 연구를 객관/주관의 뚜렷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주관주의적 경향으로 간주할 경우, 현상학적 연구는 쉽사리 상대주의적, 또는 자연과학적 심리학주의 경향의 연구라고 보는 오해를 초래한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기술과 논의로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일기도 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현상학이 지닌 철학적 사유로부터 연구 논리와 분석을 위한 통찰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철학적 개념과 논의 방식을 활용하는 예가 많

은데, 이는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이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문화기술지나 근거이론, 전기 연구 등에서 보이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성격의 기술 및 분석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반드시 난해한 철학 개념들을 축으로 하여 철학적 논의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관념적이고 추상화된 ‘철학함(philosophizing)’의 경향으로 흘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van Manen. 1994, p. 43).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정향에 따라 철학적 논의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질적 연구로서의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일상적’ 생활세계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기술하며 배려적인 통찰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지 보다 정련되고 세밀한 차원으로 연구자의 사유 능력을 심화시키는 디딤돌로서 철학적 토대와 개념들을 참조할 뿐이다.

셋째, 현상학적 연구에는 일련의 정형화된 ‘연구 기법’이 존재하고, 이를 엄격하게 따를 때 비로소 그 연구를 ‘현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비록 현상학의 창시자 Edmund Husserl 및 후세대 현상학자들과,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자들이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환원과정을 일련의 절차적 연구 단계들로 제시하긴 하였으나, 이것을 고정된 연구 기법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들은 연구자의 탐구과정을 고양되고 심화된 인식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절차이긴 하지만, 정형화된 연구 기법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 그 함의를 계발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다. Husserl(1997a, p. 121)은 학문의 내용이 방법이나 기술(techné)로 기계화되고 상징화될 때 그 원래적 통찰 및 성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을 개발한 van Manen(1994, p. 50; 54)은 연구 절차를 여섯 단계로 나누긴 하였으나, 이는 다소 작위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는 확정적인 연구 절차는 없으며 다른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 이들 절차는 단속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절차들의 기계론적 집합을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의 방법적 창안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통찰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 여섯 단계의 절차들 간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연구 단계들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통찰에 따라 재조정, 변형, 통합 또는 창안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탐구의 결정적인 순간들은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해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한 순간들은 인간과학 연구자의 해석적 민감성, 발명적 사려, 학자로서의 날카로운 감각, 글쓰는 능력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

다 (van Manen, 같은 책, p. 55).

넷째,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 연구’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후설의 후기사상인 생활세계 현상학은 구체적인 경험세계에 대한 질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후설은 생활세계를 “근원적 명증성의 세계”(Husserl, 1997a, p. 229)라고 부르면서, “학문적으로 참된 세계를 기초지우는 토대이며, 동시에 생활세계의 독자적인 보편적 구체성에서 학문을 포괄하고 있다”(같은 책, p. 234)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몸소 직접 ‘살아낸(lived)’ 체험을 통해 궁극적인 ‘구체적 보편성’의 학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체험 연구는 후설의 생활세계 현상학에 충실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체험 연구가 다 현상학적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상학적 연구만이 아니라 여타 대부분의 질적 연구 유형들 또한 공통적으로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의 체험 내용을 중시하고 이들의 정보와 자료를 주요한 데이터로 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만이 ‘체험 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는 비록 체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사건 차원(reality)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경험에서 발생하는 의식현상에 생생하게 주어지는 현사실성(facticity)의 특수하고도 보편적인 의미, 즉 현상의 본질을 탐구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체험 내용을 다루었는가, 또한 어떠한 분석과 논의로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체험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교사됨’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라고 할 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 및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어떠한 유형의 교사로, 어떠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하지는 않는다. 즉, 사실적 행위 내용이나 사건의 발생 및 경과, 인과적인 관계 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보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르친다는 행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학생과 마주하며 상호작용하는 순간들과 교사됨의 생활 경험에서 그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식현상으로 체험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됨에 ‘관한’ 체험 내용이 아니라 교사됨의 체험현상 ‘자체’는 무엇인가, 내 의식에서 관련 사건들 및 삶의 방식은 어떠한 현상으로 경험되고 의미화되는가라는 체험 내용의 현사실적인 의미 차원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³⁾. 물론 이러한 탐구는 여타 질적 연구 유형에서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상학적 연구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문제 및 연구의 ‘주된’ 초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주어질 때 현상학적 연구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험 연구”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질적 연구라도 세계에 대한 기술적 관심(technical interest)의 경험적·분석적 정향(empirical-analytic orientation)⁴⁾으로 인도될 때 경험론적 관점에서 단순 사실적 실재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험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을 대상화하여 물리적인 실재로 치환하는 연구들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지향성의 진정한 의미는 곧 사유와 대상간의 원초적인 상관관계로서 인식 주체가 세계 ‘안’에 있으면서 반성의 객체가 되는 동시에 세계에 ‘대해’ 있으면서 의식주체로서 함께 함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자연주의적 심리학의 태도를 극복해야 가능한 것이다(신호재, 2011).

이상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본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일반화된 통념들은 공통적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피상적인 수준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고도로 난해한 철학으로 알려진 현상학을 삶의 실재에 그대로 적용하여 일대일 대응논리식으로 방법화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발생한 혼란이라고 보여진다. 현상학이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많은 변형 내지 왜곡은, 질적 연구자에게 과연 현상학의 근본 이념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떠한 연구 논리와 방법으로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III. 현상학의 이념과 방법

현상학은 일반적으로 ‘인식에 대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특정한 연구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철학으로서의 고유한 이념과 방법이 한데 융합된 철학적 흐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근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흔히 ‘방법’으로 알려진 현상학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후설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현상학의 이념과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상학은 19세기 유럽에서 관념 철학의 쇠퇴와 함께 상대주의 경향의 역사주의 및 실증주의 사조가 지배하게 된 학문적 위기 속에서 철학의 기초를 재정립하고자 후설에 의해 창시되었다. 당시 유럽 학계에서는 실증주의 사조의 물리학적 객관주의 경향으로 인하여, 과학이 단순한 실증적 사실에만 관심을 지닌 채 자연과 인간 삶의 실증화시킬 수 없는 부분까지 사물화하는 물리학적 객관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었다. Husserl(1997a, p. 64)은 이러한 방법론적 일원화 현상을 가리켜 “학문의 이념을 단순한 사실학으로 환원”하는 것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학문이 삶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그에게 있어 이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학문 일반이 인간의 현존재(Dasein)에 무엇을 의미하였고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에 관계되는 것으로, “진정한 인간성에 결정적 의미를 지닌 문제들을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p. 65). 그는 “단순한 사실학은 단순한 사실인을 만들 뿐이다”라고 비판함으로써 실증주의적 사실학이 당시 시대적으로 화급한 문제인 “인간의 현존 전체가 의미 있는가 혹은 의미 없는가”하는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p. 65). 그리하여 학문이 단순한 실증적인 사실에만 그 주제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할 수 없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길 꺼려한다는 사실을 학문의 위기, 나아가 인류 전체의 위기의 근원으로 보았다. 현상학의 태동을 가져온 이러한 문제의식은 철학이 ‘인식정초의 근본주의’, ‘무전제성’ 및 절대적 자기책임의 ‘엄밀학’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 엄밀성의 의미는 정밀과학의 엄밀성과는 달리, 이론적 명제의 구축에 대한 기초적인 통찰 및 이론체계의 질서에 대한 궁극적인 명료성을 뜻하는 것이었다(Spiegelberg, 1991, p. 113).

Spiegelberg(같은 책, p. 109 이하)는 후설 현상학의 이념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엄밀한 학의 이상”과 “철학적 근본주의” 외에도, “근본적인 자율성의 정신”과 “경이 중의 경이로서의 주관성”을 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중 ‘근본적인 자율성의 정신’은 곧 후설의 학문 탐구에 있어 “도덕적 자율성의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철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전통이나 습관에 의지하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인식의 토대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인식형성의 궁극적인 원천까지 ‘아래로부터’ 소급하여 되물어가는 ‘절대적인 자기책임’의 인식론을 발전시킨 것이다.^{5) 6)}

이와 같은 엄밀학의 이념은 일종의 방법적 원리로서 추상화된 사유 방식에서 떠나서 구체적인 “사태 자체로(To the things themselves)”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 나는 진정한 학문의 예상목적에 향해 노력하는 일관성에서 내가 명증성에서 길어내지 않은 어떠한 판단, 즉 관련된 사실(Sachen)과 사태들(Sachverhalte) 그것들 자체로서 나에게 현재하게 만드는 경험들에서 길어내지 않은 어떠한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되며, 혹은 타당한 것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Husserl, 2002, p. 54).

모든 인식의 정초를 “사태 자체로” 돌아가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 자체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현상, 즉 경험으로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것’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반면 사태 자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소박한 자연적 태도의 믿음을 극복함으로써 가능

하게 된다. 자연적 태도는 ‘있는 그대로’의 실재적 환경 세계를 거기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발견하고, 그 실재성을 그대로 수용하며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으로부터 그 정립을 ‘작용중지’시키고 괄호칠 때 “공간적-시간적 현존에 관한 모든 판단을 나에게 완전히 차단하는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수행”하게 된다(Husserl, 2009, p. 125).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환원’의 개념은 Husserl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거듭하여 새롭게 보완되게 된다. 그는 우리가 자연적 태도로부터 의식 현상으로 눈을 돌리는 태도 변경으로 현상학적 태도를 취하고, 이로부터 의식현상의 개별적 사실로부터 보편적 본질로 이끄는 ‘형상적 환원’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변경을 통한 여러 변경체들을 상상하고 그 속에서 서로 합치하는 측면들이 종합되는 직관적 통찰을 통해 본질, 즉 형상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후설은 명증한 인식의 최종적 정초로서 “그 타당성을 원본적으로 부여하는 직관들로부터 직접 끌어내는 판단들 자체”(Husserl, 2009, p. 96)에 두는 ‘본질직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 이른다(Husserl, 1997b, p. 477 이하).⁷⁾ ‘선험적 환원’은 선험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식의 작용들과 대상들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것의 동일한 의미를 구성하는 원천인 선험적 자아의 순수 의식으로 그 대상영역을 드러내는 방법적 절차를 말한다(1997a, p. 36).

이남인(2004a; 2004b, p. 60 이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후설 현상학의 환원 유형을 형상적 환원,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으로 구분하고,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위해 우리의 이전 경험으로부터 얻은 선입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적 판단중지 및 환원’의 개념을 덧붙였다.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세계에 대한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가 지닌 대상에 대한 믿음 및 판단의 일체를 유보하고 “의식으로부터 일체의 물리·화학적 속성을 추상한 후 순수심리적인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시선을 돌려 단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향성을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2004b, p. 72)이다. 이에 비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라는 믿음을 괄호치고 그 믿음에 대한 일체의 판단마저 유보한 후 초월론적 주관의 의식의 지향성이 서로 결합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대상 및 세계를 구성하는 영역으로 이행하는 절차이다(2004b, pp. 87-89).

이와 같은 현상학적 환원들의 특성으로, 김희봉(1999)은 우선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으로부터 선험적 태도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태도 전환’으로서의 성격과, 세계와 주체의 자연적 관계를 지향적으로 반성의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반성적’ 성격, 또한 환원의 실행이 지향성 안에서 기능하는 의지성을 지닌 자유로운 ‘의지적 행위’ 내지

결단이라는 성격을 든다. 그리하여 현상학적 환원의 의미는 자연적 태도 속에 왜곡된 관계로 ‘꾸며졌던’ 인간 의식과 세계의 관계를 그 본래적인 지향적 의미연관으로 드러내려는 진지한 철학적 모색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과 물질간의 피상적인 분열, 자아와 세계의 분리, 인식의 근원과 학문의 목적에 대한 망각을 비판하고 참다운 이성의 자기실현, 곧 인간의 학문적 실존을 위하여 제안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의 존재론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 사이에서 길 찾기

앞서 살펴본 현상학의 이념과 방법적 원리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수용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경험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순수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을 그대로 담아내기보다는, 그 실천적 유용성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의 연구 논리 및 기법들로 축소, 변형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학문 영역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속에서 교육학 분야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어떠한 특성을 띠며 변형,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현상학의 존재론적 가능성 탐색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은 Spiegelberg, van Manen, van Kaam, Colaizzi, Wertz, Polkinghorne, Giorgi, Moustakas 등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심리학 영역에 속한 학자들이다. 후설 현상학을 중심으로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확산되었고, Heidegger, Sartre, Merleau-Ponty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현상학과, Heidegger와 Gadamer의 해석학과 연결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이 시도되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연구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심리학 영역에서는 주로 개별 경험 속에서 의미가 의식에 나타나게 되는 방식들을 탐구한 것으로, 분노나 부끄러움 경험, 이해받는 경험, 용서, 폭력피해 경험, 배움의 경험 등과 같은 경험적인 심리사실적 현상들을 분석하는 사실적 경험연구 차원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정 심리 현상의 결(textural quality)에 대한 세밀한 기술 및 그 의미 분석을 통하여 의식에 나타난 의미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기술적 심리학의 특징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현상학의 이념적 측면이나 현상학적 환원 및 초월론적 구성과 같은 방법적 원리에 대해서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Polkinghorne(1989, p. 43)은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연구와 심리학 영역에서의 현상학 연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하였다.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우선 “심리학적·과학적 전통 내에 위치”하면서 “심리학적 관심에 적합한 현상들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방법적 절차로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수행한다. 이는 심리학이 지닌 물리학주의적인 실재론의 “과학적 태도” 속에서 현상학을 방법적으로 수용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까닭에(Romanyshyn & Whalen, 1989), Giorgi(2009, p. 98)가 현상학적 환원의 개념을 “‘과학적인’ 현상학적 환원(‘scientific’ phenomenological reduction)(연구자 강조)”으로 개칭하고 연구의 주제 영역을 전통적인 자연과학적 심리학에서 수용될 수 있는 체험적 ‘실재’(lived ‘reality’) 차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전자가 인간 의식 자체의 보편적인 구조에 관심을 두는 데 비하여 심리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는 일군의 집단이나 개별 사례에 나타나는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인 구조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학적 현상학 연구는 일종의 과학으로서, 자기성찰적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부터 얻은 현상 기술(記述)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엄밀하게는 심리학의 과학적 전통과 체계성, 전형적 구조, 대상적 현상의 기술분석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자연과학주의 내지 소박한 실재론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현상 자체가 객체로 대상화될 수 있는 실재로 전제되기 때문에, 주체/객체의 뚜렷한 분리 개념으로 인하여 현상학의 중심 개념인 지향성에 대하여 깊은 고려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자연스런 결과로, 연구 방법에 있어 탐구 대상인 심리현상의 기술과 분석을 위한 절차적 지식과 단계별 분석 기법이 간결명료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발달한 반면, 참여자 및 연구자의 자기보고적 성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약화되었다.

교육학 영역에서의 현상학의 수용은 심리학 분야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지식구성의 절대적 정초까지 되물어가는 학문적 자율성과 근본주의 정신, Husserl의 후기 사상인 생활세계에로의 복귀라는 이념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로 교육적 맥락 및 생활세계적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배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주관적인 의미구성을 비롯하여 지식구성 행위에 숨은 인식론적 기저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형태로 적용되었다(조상식, 2004). 그 도입 초기에는 교육학의 본질적 위상정립을 위해 ‘교육 현상 자체로’ 돌아감으로써 타 학문으로부터의 사전전제적인 이론적 종속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각성의 의도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에서

Husserl의 후기 사상인 생활세계에로의 복귀라는 이념을 생철학이나 인간학, 해석학, 실존철학, 미학 등의 정신과학적, 철학적 토대들과 함께 수용함으로써 인문학적 사유 방식과 함께 개별적인 경험의 고유한 특성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였다.⁹⁾ 특히 복미의 교육과정 학자들(curriculum reconceptualists)은 20세기 후반에 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을 꾀하기 위해 현상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나가는 지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유혜령, 2005).

이러한 도입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학 영역에서의 현상학 연구는 여타 철학적 사조들과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교육학의 자율성과 교육 현상에 대한 각성을 위하여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증적인 실재론을 토대로 구축된 심리학에서의 수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형성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고 있듯이 교육학 영역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식의 지향성과 주체상관적인 세계구성, 인간 실존의 본래적 의미와 존재론적 성찰, 언어현상학, 이해와 해석의 문제 등을 연구 논리로 적극 도입하였다. 그 예로서, 교육학 영역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을 개발한 van Manen(1994, p. 22)은 현상학적 연구를 “[연구자의] 존재와 존재변화의 교육과정(curriculum of being and becoming)”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자로서 연구자의 존재됨에서 비롯되는 성찰과 사유능력이 교육학적 현상학 연구의 특성이라고 본다. 그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자(부모 또는 교사)이게끔 하는 깊은 관심과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p. 16)고 하면서, 연구 주제인 교육 사태를 지향하는 교육자로서의 연구자 자신의 ‘존재론적 지향’을 강조한다. 곧 현상에 대한 앎의 문제가 인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됨’의 문제, 즉 존재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용기, 1996). 흔히 교육학 분야의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주제 현상의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의 존재가 강렬하게 지향함을 드러내는 글쓰기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연구자가 직접 체험한 삶의 일화를 배경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도출하거나, 연구주제 및 과정에 대한 자신의 존재론적 지향과 해석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을 논문의 필수부분으로 삽입하기도 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은 인식론으로서의 현상학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론으로서의 측면을 담고 있다. 연구 방법이 연구자의 존재와 분리되어 있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 자신이 연구 도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상학의 중심 개념인 지향성 자체는 ‘구성적 종합’을 가리키는 내용인 만큼, 현상학적으로 지향된 인식은 단지 사실적 실재에 대한 감각적 자료의 지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상상적 연관의 본질직관을 통해 비조작적인 임의의 변경체들로부터 본질연관으

로 새롭게 획득되는 ‘형상적(본질) 주어짐’을 갖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흘러가는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의 국면들을 지닌 근본적인 시간의식의 통일체로서(Husserl, 1996, pp. 239-240),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수동적, 능동적 실존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초월적 구성작용이다. 즉, 연구 주제가 되는 대상 현상에 대해 고차의 인식에 이르는 과정은 연구자의 존재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대상 현상에 대한 명증한 인식은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확대, 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2. 현상학의 방법적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서 융통적으로 적용하기

현상학 연구란 현상학의 고유한 이념을 연구 방법으로 진정하게 구현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상학의 이념을 어떻게 질적 연구방법으로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가 곧 연구자의 존재론적 성찰과 연결된 문제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상학의 이념이 엄밀한 자기반성과 자기책임을 바탕으로 인식형성의 궁극적 원천에까지 소급하며 물음을 거듭하는 엄밀하고 자율적인 학문적 근본주의임을 상기할 때, 연구자의 존재변화와 관련하여 그 방법적 원리인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형상적 기술, 본질직관, 초월적 구성 등이 어떠한 실천적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는 오히려 자명해진다.

흔히 질적 연구자들 중에는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의 개념을 연구자가 거치는 기계적인 일회성의 단계적 수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 과정은 연구자의 자기반성과 수동적 실존, 능동적인 의지적 결단으로 존재가 성숙되는 과정이다. Husserl(1997a, pp. 242-243)에 따르면, 이 과정은 종교적 개종을 넘어 이루어지는 존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총체적인 현상학적 태도와 이 태도에 속한 판단중지는 우선 본질적으로 완전한 인격적 변화(personale Wandlung)을 이룩해낼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으며, 이 인격적 변화는 우선 일종의 종교적 개종(改宗)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인간성(Menschheit)으로서 인류에 부과된 가장 위대한 실존적 변화의 의미를 그 자체 속에 간직하고 있다. [...]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 연구의 전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연구자의 존재론적 지향을 통한 연구자 자신의 사유 능력과 성찰이다. 다시 말해서 현상학의 방법적 원리들로 이루어지는 연구 절차가 연구자의 ‘연구 도구됨’으로 인도될 때에야

구체적인 실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실천적 맥락에서 볼 때, 판단중지 및 현상학적 환원의 과정은 현상학의 철학적 전통에서 말하는 것보다 확장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판단중지와 환원의 방법적 원리들은 경험한 대로의 현상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는 주관적·사적 감정, 선호, 경향성, 기대를 극복하고, 경험적인 구체적 사실을 추상화시키는 논리적인 이론체계나 과학적 지식 및 논제들을 유보하며 의식 현상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체험적 의미의 개별적인 특수함을 뛰어넘어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본질, 즉 형상을 변증법적으로 직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각각 경험적 판단중지 및 환원, 현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 및 환원, 형상적 환원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성격은 “반성이 의식의 반성되지 않은 삶과 겨루도록 하려는 열망”으로 근본적으로 자기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며 대상 경험현상에 자율적인 인식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van Manen, 1994, p. 240). 현상학적 환원의 원리들은 어느 정도의 순차성을 지닌 절차적 단계들로서, 개별 경험현상의 ‘특수성’으로부터 구체적이고도 ‘보편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변증법적 탐구 속에서 연구자의 주의 깊고 세심한 성찰과 직관적인 본질연관을 이루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이근호, 2007). 그리하여 그것은 구체적인 수행 방식에 있어 스스로의 편견이나 선입견, 통념, 사전 전제나 이론적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questioning)나,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확인하기(revealing), 선행 연구나 이론들의 전제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하기(self- or theoretical-reflection) 등으로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다(유혜령, 2009). 다음은 “출산의 고통(birthing pain)”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물 서두에 제시된 내용으로, 일반화된 사회적 통념에 대해 연구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연구 주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판단중지 및 현상학적 환원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체험 현상의 원초적인 의식 수준으로 들어가는 한 예이다.

산통의 의미가 인간의 체험에 나타나는 대로 스스로를 열어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산통(産痛)에 대해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통증이 매우 직접적이고 원초적으로 나타나는 까닭에, 그 고통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지녀온 다음과 같은 전제와 이론들과 설명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1. 통증은 부인(否認)되어야 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우리는 마치 아기출산

법을 교육하는 교사의 자세로 출산에 관한 모든 언어에서 '통증'이란 말을 제거함으로써,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기꺼이 도전하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여성들을 가르친다. [...] 결국 통증을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떤 가상의 사유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출산의 고통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정작 무엇을 부인하게 되는가?

2. 통증은 경감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약국 진열장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의료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홍보한다. 비록 인간의 고통이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통증을 회피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잠시 물려서서 생각해보자. [...] 이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스런 감각적 경험과의 접촉만 잃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접촉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 여성으로부터 출산의 고통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는 결국 무엇을 잃게 되는가? [...]

3. 고통은 부정적인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출산의 고통은 출산 과정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 이제 출산은 병과 죽음의 의미와 연합되어버린 의료적 행위가 되었기에, 모든 고통은 기본적으로 일단 질병과 연합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그러나 산통의 경험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죽음이 아닌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출산의 고통을 암이나 관절염과 같은 질병의 고통과 과연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Melzack et al., 1980). 고통이 때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4. 고통은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고통을 물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설명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긴 하지만, 고통의 경험을 그 자체로, 전체적인 그 무엇(wholeness)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감지력과 감각을 조각내어 파편화시켜버린다. 산통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의 경험이 지닌 원초적인 전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경험을 그 전체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Bergum, 1986)

이 글을 통하여 환원의 자세로 수행된 기존 통념에 대한 반성적 물음이 연구의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여, 경험현상의 본질에 대한 초월적 의미를 향하여 해석학적 성찰 및 초월론적 환원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고통에 대한 기존의 당연시된 통념들을 잠시 물려서서 다시금 생각해보는(rethinking) 환원의 자세를 통해 인간의 몸이 경험하는 세계, 세계인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실 현상학적 환원이란 개념은 후설 자신도 여러 갈래의 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정교화했던

내용이다. 또한 세계 속에 속한 세계내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규정했던 Heidegger나 인간의 구체적인 몸으로부터 인식의 지향성을 찾고자 했던 Merleau-Ponty에게 있어서는 현상학적 환원이란 그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된 내용이다(김희봉, 1999, p. 242; Spiegelberg, 1991, pp. 275-276). 실존철학이나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이미 전통의 선입견과 편견의 벽에 둘러싸인 존재이다. 이 관점에서 현상학적 환원은 새로운 경험이 가져오는 기존 경험에 대한 부정성을 수용하여, 이미 선이해의 구조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및 지식체계의 지평을 해체하고 자신을 열어가는 “질문과 대답의 변증법적 대화” 내지 “해석학적 순환”의 자세로 이해될 수 있다.

현상학적 환원에 대하여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때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에서 환원의 문제는 연구자의 지평과 사유 능력에 따라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경험적 환원 뿐 아니라 초월론적 환원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대개 여러 학문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상 분석의 직접적인 적합성 수준에서 현상학을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철학 비전공자인 연구자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절차를 Husserl 현상학을 중심으로 개발한 까닭에, 이제까지 이에 관한 질적 연구방법론은 자연적 태도변경 및 판단중지, 경험적 환원,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형상적 환원, 본질직관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자의 존재론적 측면과 불가분 관련되는 질적 연구의 차원으로 눈을 돌릴 때 발생적 현상학의 흐름과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관으로, 또한 초월론적 주관의 세계구성 작업을 의미하는 “초월론적 발생”을 함께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남인, 2004b, p. 544).

Husserl 현상학적 모토인 “사태 자체로”가 지적하는 바는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에 있어서는 곧 인간이 세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존재 사태’가 되고, 지향성은 존재자의 존재구조를 형태 짓는 틀이 된다(홍성하, 1995). 세계내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가 마주하는 현실에 대하여 그 나름으로 이해하며 늘 달리 새롭게 그 의미를 실현해감을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한다. 이처럼 존재의 실존하는 모습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는 경험현상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인식 작업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문제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존재성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사유와 삶과의 관련, 이해와 존재의 관련으로 보여준다(박남희, 147). 질적 연구자는 주어진 경험의 의식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그 본질에 대한 파악을 넘어서서, 그것이 만들어진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 초월적인 세계구성을 지속해나갈 것을 요구받게 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목표로 하는 연구

자의 해석 지점이 이제 “체험 그 자체가 아닌, 세계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만들어진 체험의 의미”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김애령, 2007, p. 8). Spiegelberg(1975, p. 69)에 따르면, 현상학의 중심 원리에 대한 이러한 해석학적 확장을 통하여 인간 실존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삶(life)’뿐 아니라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actual living)’에 대한 전망을 달리할 수 있고, 경험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설명의 탐구가 줄 수 없는 학문과 삶의 방향감을 지닐 수 있게 된다.

3. 연구 기법을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창안하기

현상학의 태동은 객관주의적인 실증주의 사조와 상대주의적인 역사주의 사조의 방법론적 일원화 경향에 반기를 들고 어떠한 사전 전제와 이론체계 및 전통적 관점에 대해서도 그 근원에까지 검토해 들어가며 절대적인 자율성의 자세를 취하는 학문적 이념을 이루고자 시작되었다. 그러한 만큼 현상학은 이념적 측면에서 절대적 자율성과 학문적 근본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지향성과 현상학적 환원 등의 개념 및 방법적 원리들 또한 이 같이 인간의 인식 ‘근원’을 드러내고 그것에까지 집요하게 물어가는 인식 주체의 자세와 방법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상학은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철저한 근본주의적 이념이 다소 퇴색되면서 일종의 고정된 방법을 담은 인식론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태 자체로”라는 현상학적 자세를 모든 연구 유형의 기본 사상으로 삼는 질적 연구에서조차 현상학적 연구 유형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고정된 연구 기법으로 환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흔히 “00식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일련의 절차적 기법들(techniques)을 연구자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학문적 엄밀성의 보증양식으로 전제하고 이를 연구자의 문제의식이나 연구 내용과 관계없이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를 말함이다. 이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는 엄밀학의 이상을 위해 그 어떤 무비판적인 전제도 수용하지 않고 인식의 근원까지 집요하게 물어갔던 현상학자들과는 정확히 역방향(逆方向)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후설이 개탄하며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객관주의의 ‘방법론적 일원화’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Spiegelberg(1992, p. 260)는 전통의 편견으로 결정화되어버린 믿음과 이론을 유보하고 순수 현상에 되돌아가기 위해 이론적인 구성물과 상징들을 신중히 확인하고 배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은 “단순성의 원리 혹은 사유의 경제성의 원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Gadamer(1996)가 주장하였듯이, 방법(method)과 진리(truth)는 서로 배리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단순성의 원리에서 비롯된 연구 방법이야말로 경험의 직접적인 소여로 되돌아가려는 현상학자의 자세를

방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상을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하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Spiegelberg, 1992, p. 261)는 자세로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얹히 형성되는 궁극적 원천인 의식과 직관적 통찰의 차원에서 ‘복잡하고 치밀한’ 사유와 자기반성 및 자기책임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자들이 개발한 연구 절차 및 방법들은 참조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지니는 것에 불과하며, 연구자 자신이 수행해가는 지난한 성찰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길을 잃지 않고 현상학적 방향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학문과 철학의 이념에는 그 자체로 좀더 앞선 인식에서부터 좀더 뒤의 인식으로 가는 인식질서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의 본성 속에 정초된 출발과 계속된 진행을 하면서 들어가 삶(Einleben)으로써 처음에는 그 노력을 막연히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학문의 목적이념의 근본요소가 드러나 밝혀진다(Husserl, 2002, pp. 54-55. 연구자 강조).

이것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현상학의 근본 이념을 연구 논리로 삼아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어 사유가 무르익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념의 옷’을 입지 않은 생활 세계적 경험 현상의 전반성적 의식 내용을 민감하고 생생한 필체로 드러내며, 그 구체적이고 독특한 보편성의 본질을 찾아가는 일은 인식 주체의 지평과 근본적인 시간 의식의 통일체로서 의미의 구성적 종합을 이루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탐구 대상인 특정 현상에 주목하며 그 현상에 대한 자신의 존재론적 지향으로 연구 주제 및 문제의식을 실천적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그 삶의 과정에서 점차 고차의 인식 단계에 이르고 각 단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본질에 대한 직관적 통찰 및 사유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자율적인 의식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반복(repetition)에는 단순한 모방이나 재생산(reproduction)이 아닌 새롭게 전개되는 창조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상학의 이념과 방법적 원리들을 연구 논리로 삼아 그 구체적인 연구 기법들을 복잡하고 가변적인 자신의 연구 상황에 맞게 변용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창안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학자들이 제안한 순차적 단계의 연구 절차를 고려하여, 그것을 자신의 연구 내용과 상황에 따라 창의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방법적 원리들이 포함된 내용만 제외하면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다소 작위적이며 다른 방식의 절차로 변형하여 개발하는 데 다만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는 내

용들이다. 연구 방법은 Heidegger식으로 표현하면, 명료한 의식이 열리는 숲 속의 ‘빈터’를 향해 ‘소로’를 개척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소로의 개척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비록 Husserl의 제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일종의 환원과 판단중지를 하게 마련이다.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를 강렬하게 지향하며 그 현상을 향해 환원하게 된다. 또한 자유변경 및 본질직관의 방법적 원리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 어떤 알고자 집중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향해 임의적으로 이리저리 변경체들을 상상해보거나 알아보며 가장 구체적이며 특수하고도 보편적인 핵심의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Husserl의 이론적 제안들은 자기만의 특유한 비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탐구자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취해왔던 사유의 고차원적 정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한 수준에서는 특정 경험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의식현상을 기술하고 그 의미 단위들을 구분하여 본질적인 현상적 특성을 추출해내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수준에서는 지향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감각자료(hyle)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인식작용과 인식된 것 사이의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나 단계적인 현상학적 환원을 연구논리로 부각시키면서, 인식 주체인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인식 내용인 현상 및 데이터와 갖는 관계적인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발생 과정을 세밀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논문 구성체제 및 글쓰기 방식에 있어 전면에 부각시키는 형태로 창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일상세계의 경이로움에 민감한 연구자의 감성과,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적인 이론적 전제 및 논리,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자기반성 및 물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상학관련 문헌 내용뿐 아니라 일상적 관용어나 어원 등과 같이 해석학적 원천을 탐색할 수 있고,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영화, 회화, 음악 등의 예술적 자료로부터 깊은 통찰과 기법을 발견하여 그 내용 및 서술 방식을 원용(援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논문의 체제구성과 글쓰기 방식 또한 자유롭고 신선한 감각으로 구성하면서, 직선형의 사고발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정형화된 논문 체제에 저항하는 실험적 제스처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을 1인칭인 ‘나’로 지칭함으로써 주체와 객체 구분 이전의 지향성 개념을 글쓰기 전면에 부각시킬 수 있고, 연구자의 판단중지 및 환원의 실천을 선행이론 및 자신의 해석과정에 대한 이론적, 존재론적 성찰의 형태로 삼입하거나, 연구 문제의식

및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한 방향 탐색을 거듭되는 물음던지기(questioning and re-questioning) 형식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해석학적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기법(techniques)은 원래 “techné”라는 그 어원에 있어 세계를 빛 속으로 ‘드러낸다(revealing)’는 poíesis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작품(art)과 시작(詩作)(poetry)이 지닌 공통된 성격을 지칭하였다(Heidegger, 1977, p. 34). 예술가나 시인이 자신만의 통찰 속에서 세계의 진리를 드러내듯이, 질적 연구자 또한 궁극적인 자기책임의 ‘드러냄의 양식(mode of revealing)’을 통해 세계의 진리를 빛 가운데로 가져온다. 연구 기법은 바로 그 ‘드러냄의 양식’이다.

IV. 맺으며

이제까지 현상학의 기본 이념과 방법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현재 학계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고 있고 그 관심에 비견될 만한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본 연구의 내용 또한 그러한 우려와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질적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동안 현상학적 연구 유형에 대하여 지녀온 개인적인 관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비판적 방향으로든 혹은 생산적인 방향으로든 보다 심화된 이해를 이어갈 작은 단초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순수 학문인 현상학과 질적 연구 분야를 연결하는 입장에서, 질적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 온 존재론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존재를 객관적인 외부자로 보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진술과 연구 내용에 깊이 관여하며 함께 공동의 사회적, 실존적 실재를 창조해내는 공동참여자로서 본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 방법이란 본질적으로 연구자의 존재에 다름 아닌 것이라는 사실에서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적극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상학자들과 질적 연구자들 간에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Husserl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상학 전통에는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 뿐 아니라 Heidegger의 해석학적 현상학, Sartre의 실존적 현상학,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 Levinas의 윤리적 현상학, Ingarden과 Dufrenne의 미학적 현상학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까닭에, 통일된 이론체계로 요약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학적 운동’의 취지와 흐름을 질적 연구에 어떻게 연결하는가하는 문제를 여러 방향과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결실을 충실히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현상학적 질적 연구 중 상당수는 네덜란드의 Utrecht School의 생활세계적 현상학을 그 원류로 한다. Utrecht School은 아동의 다양한 경험세계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기초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시간, 공간, 관계, 몸의 체험된 현상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함의로 도출하는 형태로 아동연구를 활성화시켰는데, 이러한 연구가 북미 대륙에 전파되면서 보다 실천적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개발되게 되었다.¹⁰⁾ 또한 북미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학풍에 따라 Heidegger와 Gadamer의 실존적 존재론과 해석학적 현상학에 기초하여 현상학적, 해석학적 연구로 행해진 연구들이 국내에 소개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후설 현상학으로 인도된 연구 방법과는 글쓰기 방식이나 체제구성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나는 질적 연구의 특성은 국내 현상학자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미 대륙에서 발전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하여서는 국내 학계에서 방법론적 탐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상학 철학 영역의 학자들과 질적 연구자들과의 소통이 긴요하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애령 (2007). '체험연구'의 현상학적 토대와 해석학적 확장. 한국해석학회 · 한국현상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pp. 1-10).
- 김희봉 (1999). 현상학적 환원의 성격과 의미. 철학과 현상학연구, 13, 241-265.
- 박남희 (2009). 현상학과 해석학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한국교육인류학회 ·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학술대회 워크숍자료(pp. 147-152).
- 신호재 (2011). 자연주의 심리학에 대한 현상학의 비판: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0, 144-176.
- 유혜령 (2005). 아동교육 연구의 현상학적 접근: 역사와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8(1), 57-90.
- 유혜령 (2009). 교육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의 성찰과 연구 기법의 문제. 아동교육, 18(1), 37-46.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남인 (2004a).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한국교육인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5-26).
- 이남인 (2004b).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혜경, 홍성하 (2001). 간호학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연구, 18, 176-202.
- 조상식 (2004). 현상학과 교육학: 방법론적 수용의 한계? 한국교육인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35-53).
- 조용기 (1996). 구성주의 교육의 구성. 교육철학, 14, 237-253.
- 조용환 (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 홍성하 (1995). 지향성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인 현상학: 브렌타노와 훗설 그리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해석학연구, 14-39.
- 홍성하 (2002). 질적 연구와 현상학. 대동철학, 19, 209-225.
- Bergum, V. (1986). Birthing pain. *Text of the body*. Edmonton: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Alberta.
- Colaizzi, P. F. (1978). *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earning*. Dubuque, IA: Kendall/Hunt.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Denzin, N., & Lincoln, Y. S. (2005).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troduction.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1-32). Thousand Oaks: Sage.
- Gadamer, H.-G. (1960). *Wahrheit und methode*. Tübingen: J. C. B. Mohr. Weinsheimer, J. & Marshall, D. (trans.)(1996). *Truth and method*. New York: Continuum.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Heidegger, M. (1977).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trans. & intro. W. Lovitt). New York: Harper & Row.
- Husserl, E. (1966). *Zur Phänomenologie des inneren Zeitbewußtseins 1893-1917*. 이종훈 역(1996). 시간의식. 서울: 한길사.
- Husserl, E. (1954).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이종훈 역(199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서울: 한길사.
- Husserl, E. (1938). 경험과 판단: 논리학의 발생론 연구. 이종훈 역(1997). 서울: 민음사.
- Husserl, E., & Fink, E. (1963). *Cartesiansche Meditation und Pariser Vorträge/VI. Cartesianische Meditation*. 이종훈 역(2002). 데카르트적 성찰. 서울: 한길사.
- Husserl, E. (1950).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nologischen Philosophie I*. 이종훈 역(2009).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 서울: 한길사.
- Laverty, S. M. (2003). Hermeneutic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y: A comparison of histor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 Lopez, K. L., & Willis, D. G. (2004). Descriptive versus interpretive phenomenology:

- Their contributions to nursing knowledg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5), 746-735.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Polkinghorne,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pp. 41-60). In R. S. Valle, & S. Halling (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New York: Plenum.
- Romanyshyn, R. D., & Whalen, B. (1989). Psychology and the attitude of science(pp. 17-39). In R. S. Valle & S. Halling(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New York: Plenum.
- Spiegelberg, H. (1975). *Doing phenomenology*. The Hague: Martinus Nijhoff.
- Spiegelberg, H. (1984).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The Hague: Martinus Nijhoff. 최경호, 박인철 역 (1991). 현상학적 운동 I. 최경호 역 (1992). 현상학적 운동 II. 서울: 이론과실천.
- Valle, R. (Ed.) (1998). *Phenomenological inquiry in psychology: Existential & transpersonal dimension*. New York: Plenum.
- van Kaam, A. (1959). Phenomenal analysis: Exemplified by a study of the experience of "really feeling understood."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15(1), 66-72.
- van Kaam, A. (1966). Applic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van Kaam,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Ontario, Canada: Univerisity of Western Ontario.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 Wertz, F. J. (1984). Procedure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the question of validating. In C. Aanstoos (Ed), *Exploring the lived word: Readings in phenomenological psychology* (pp. 29-48). Carrolton: West Georgia College.

후 주(後註)

- 1) 이 논문은 2012년 10월 한국교육인류학회·한국현상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현상학과 질적연구")에서 기조 강연으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2) 본고의 서두에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라 함은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등의 분야에서 교육 현상의 분석과 이념도출을 철학적 접근의 개념적 논의로 전개되는 ‘현상학적 연구’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육철학 분야의 ‘현상학적 연구’를 논의로 하는 까닭에, 본고의 이하 부분에서는 맥락에 따라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현상학적 연구’로 약칭하기로 한다.
- 3) 비록 ‘사실적인’ 경험 내용을 자료로 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질적 연구 유형들과 다를 바 없으나, 현상학적 연구는 실재론적 관점에서 사물화, 규칙화될 수 있는 사실적 내용이 아니라, 그 사실적 체험 내용이 다른 장소 및 시간에서 임의의 형태로 달리 존재할 수도 있는 ‘우연성’, 그러나 그 본질상 달리 규정될 수밖에 없는 ‘본질-필연성’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이념들 1』, pp. 59-60).
- 4) 여기에서 “경험적·분석적 정향”의 인식이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Knowledge and human interest*』(1972)에서 분류한 학문 유형인 기술적 관심(technical interest)의 “경험적·분석적 정향”, 실체적 관심(practical interest)의 “상황적·해석적 정향”, 해방적 관심(emancipatory interest)의 “비판적 정향” 중에서 차용한 것으로, 행동과학 이론, 체제이론, 인공지능학, 구조기능주의 이론 등이 지닌 실증주의적 ‘경험론’의 특성을 일컫는다. van Manen과 Ted Aoki 등이 재직하던 University of Alberta의 중등교육과에서 공부한 필자의 수학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법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운동을 이끈 Ted Aoki의 “Curriculum in a New Key” 등의 여러 논문에서 나타나는데, 그의 제자였던 van Manen 또한 이러한 분류법을 받아들여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의 저서 『체현 연구』에 나타난 “경험과학”이란 용어의 의미는 실증주의적인 ‘경험론적’이란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5) 이와 같은 후설의 노력은 의식의 구성적 기능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의 형태로서 신의 이념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철저한 것이었다(Spiegelberg, 1991, p. 118).
- 6) 스피겔버그가 요약한 후설 현상학의 이념 중 “경이 중의 경이로서의 주관성”은 절대적 자기책임으로 실존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주관성의 측면으로 순수자아와 순수의식 현상을 뜻한다.
- 7) 이 본질직관의 과정에서 자유변경은 변경체의 형성을 조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usserl, 『경험과 판단』, p. 477 이하). 그 변경향들을 임의적으로 계속 형성하는 의식 속에서 합치되는 동일자, 즉 본질적인 것이 수동적으로 미리-구성되고, 본질의 직관은 그것을 능동적 인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수동적 인식과 능동적인 파악의 통일체적 종합으로서의 본질직관인 것이다.
- 8) 주체/객체의 뚜렷한 구분 속에 심리 현상을 객체화하여 분석하는 관점을 취하였고, 현상학의 지향성 개념이나 현상학적 환원 및 판단중지 문제를 연구자의 태도 및 연구 방법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 9) 구체적으로, 20세기 초기에 시작된 현상학적 연구들은 연구방법론의 기초를 교육 현상의 사실에 두는 “교육학적 사실연구”들이었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가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사태 자체의 본질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당시 교육학을 ‘오염시킨다고’ 생각되는 다른 인문학적 이론과 방법론의 선입견으로부터 교육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제2차 대전 후에는 생철학과 실존철학, 해석학 사조와 함께 결합된 “교육학의 인간학적 전환” 속에서 현상학적 연구, 특히 메를로퐁티의 지각현상학에 영향 받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 후 북미의 신교육사회학의 방법론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조상식, 2004, pp. 37-40).
- 10) 현상학적 체현연구방법론을 개발한 Max van Manen은 네덜란드의 Utrecht University에서 그의 학부과정을 수학한 까닭에, 그의 학문적 기반은 M. J. Langeveld의 아동의 생활세계 탐구, M.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 인간학적 교육론(O. F. Bollnow), 독일 정신과학의 영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ABSTRACT

Some Misunderstandings and Understandings of Phenomenologically-Oriented Qualitative Research: Seeking the Way Between Research Logic and Techniques

Yeu, Hae-Ryung(Korean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former professor)

Recently qualitative research with phenomenological orientation has again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many areas of academic disciplines in and out of the country, yet some doubts have also been raised by a few critics about how faithfully these research follow the ideas and methods of philosophy of phenomenology. Critically examining the commonsensical misconceptions of phenomenologically-oriented qualitative research, it is attempted in this study to illuminate the genuin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logic and research techniques on the basis of the core ideas an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phenomenology.

First of all, the core ideas of phenomenology are discussed in the study, such as the fundamentalism of epistemological foundation, the ideals of “rigorous science”, the principles of “presuppositionlessness”, and the autonomy of absolute self-responsibility suggested by Edmund Husserl, as they indicate the ultimate direction of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like “Epoche”, “reduction”, “intuition of essence”, etc.. Such direction is the very existential state of researcher’s Being, who autonomously faces and seeks the essence of consciousness above all the taken-for-granted assumptions and presuppositions that s/he may have. These research logic is the manner or style of thinking which s/he should concretely “live through” by practice during the research. This is the wisdom of living to deepen and make sensitive her/his intuition, reflection, and interpretation. Therefore, research techniques are not the pre-existing set of techniques apart from researcher’s ontological being, but can be flexibly transformed into or invented by researchers themselves in many different forms of practice. Researcher can make them various forms of practically living through the research situations, for example, attending the phenomenon and keeping strongly oriented one’s own consciousness into the primordial state, explicating the assumptions and pre-understandings and revealing their presuppositions, or constantly questioning and re-questioning about and

reflecting upon researcher oneself and the directions her/his research proceeds.

Keyword: Phenomenology of Practice, Research Techniques, Researcher's Academic Existence, Epoché, Phenomenological Reduction

논문접수: 2013. 7. 19. / 게재승인: 10. 1.